

잇따르는 렌터카 무면허 사고 방지책 없나

목포서 고교 2학년생 무면허 운전 사고 내 3명 숨져 광주·전남 지난해까지 5년간 80건 사고...매년 급증 업체, 청소년에 마구잡이 차량 대여 막을 대책 필요

지난 13일 밤 11시 30분께 목포시 상동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고교생 5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40세 남성이 숨졌다.

목포경찰청에 따르면 렌터카에 탑승 중이던 고교생 5명은 목포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평소 알고 지내던 A(17)군이 대여한 렌터카를 빌려 탄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2003년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지만 1992년생 성

인 남성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군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업체 측은 "이전에도 두어 번 차량을 빌려갔으며 차량을 대여하며 제시한 운전면허증의 인물과 A군이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의 불법 렌터카 대여행위가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렌터카 업자들이 대여자의 정확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면, 청소년들의 불법 대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업자들이 매출만을 생각해 손쉽게 대여해주기 때문에 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여자가 미성년자로 추정될 경우 운전면허증을 통한 얼굴 확인과 주민번호 확인, 집주소 등을 체크하면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10대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80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65명이 다쳤다.

전남의 경우 1건(2015년)→6건(2017년)→7건(2018년)→11건(2019년)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광주시 북구에서는 렌터카를 몰던 고등학생이 운전 미숙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상가 건물로 돌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고만 나지 않으면 청소년에게 차를 빌려줘도 상관없다는 렌터카 업체들의 그릇된 인식을 지적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을 빌리려는 사

람이 보유한 운전면허와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에 따른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행정 조치를 받은 렌터카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면허증을 도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차를 빌려줬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고, 현장에서 위반 여부를 단속하기란 어렵다는 게 전남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주서부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업자가 청소년들에게 차를 대여하지 않겠다는 일반적인 양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무면허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차를 대여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교육부 "영광 모 중학교 동성 성폭력 사건 엄중"

교장 등 징계·교육청 경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영광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뒤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해당 학교 법인 학교장과 교감, 책임교사 등에 중·경징계를 하고,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는 등 강경 조치를 결정해 기간 제기됐던 구조적 문제가 사실이었다는 것으로 입증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5일 청와대가 공개한 '중학교 동성 성폭력 부실 대응 규탄'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숨진 중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이 지난 6월부터 영광의 한 대안 중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으나 학교 등 관계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끝내 아들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지

난 7월 게시돼 한 달 간 총 25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 차관은 "전남도 교육청의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 조사 결과, 학교에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며 "학교 법인은 학교장에 징적 3개월, 교감에 감봉 1개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적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학생 1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를 결정했고,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와 나오는 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엄중한 조사와 더불어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한 주체별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남북교육교류 방안 모색

21개 기관과 온라인 워크숍
광주교육청이 주관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가 지난 14일 전국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통일부 등 21개 기관(단체)과 함께 온라인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지방정부 남북교류 실무(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박찬숙 남북교류지원부장)', '변화하는 북한의 교육방향과 의의(통일교육원 조정아 교수)' 등의 특강 및 시도교별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소위원회는 남북교육교류협력 전국 공동 사업안 마련을 목표로 연말까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차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중요한 교육현안들 가운데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교육교류는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며 "사·도교육청의 역량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력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소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출범한 사·도교육감협의회 남북교육교류협력소위원회(위원장 장휘국)에는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통일부, 한국교육개발원과 민간단체(어린이재단 등) 등 21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



모의평가 시험장 꼼꼼한 방역
마지막 수능 모의평가를 하루 앞둔 15일 광주시 동구의 한 입시학원에서 학원 관계자들이 시험장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동신대 건강복지 인력양성 사업단 성과 평가 '최고 등급'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과정을 운영하는 동신대학교 건강복지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사업단이 2019년 성과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동신대 사회복지학과와 운동처방학과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은 전남지역 일반대학 11개 사업단 중 가장 높은 75%의 취업률을 올려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능력 강화, 전문가 초청 특강, 파트너십 교육 등을 통해 전남지역 건강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동신대 건강복지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사업단은 전국에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전남지역에서 운동과 복지 융합된 사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취업 코디네이터 운영, 자격증 획득 지원, 1대1 맞춤형 취업상담, 방과 후 지도교수 특강을 진행하며 취업률 향상에 노력했다. 또한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능력 강화, 전문가 초청 특강, 파트너십 교육 등을 통해 전남지역 건강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최희준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북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520원 확정

광주시 북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52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북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 53명에게 적용된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만 5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올해 생활임금(1만 353원) 보다 1.6% 인상됐으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800원 많은 금액이다. 하루 8시간·한달 209시간 근로 하계되면 월 219만 8680원을 지급받게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교 찾아가는 일일체험학습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21일~12월 11일까지 운영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찾아가는 일일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간 '일일체험학습 프로그램'은 각 학교가 학생교육문화회관 방문을 통해 이뤄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먼저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는 찾아가는 일일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아이클레이 ▲풍선 아트 ▲스포츠 스타킹 ▲매듭공예 ▲드론 교실 ▲네일아트 등 12강좌로 구성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당 강사를 학교에 파견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봉선초 등 25개교가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혔다.

장문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라는 다소 제한적 공간에서나마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면서도 아쉬움이 크다"며 "학생들이 우리 회관을 방문해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